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 연구

- 대학생 통일안보 대토론회 및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규남*

요 약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안보의식은 국민이 국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그 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이다. 대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꿈과 목표는 실현 불가능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초·중·고교를 거치면서 입시위주 교육을 받았다. 또한 대학생이 되어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경력 쌓기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국가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던 시점에 금번, “대학생 통일안보 대 토론회”에서 토의된 사항과 대토론회 이후 대학생들의 달라진 안보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n the Study of College Student's Security Awareness

- On the focus of college student's survey & seminar for unification and security -

GyuNam Kim*

ABSTRACT

The defin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is that the lives of its people and the property of the country must be kept from the enemies. The people in the country must have the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in their mind, and the fate of the country relies on the security awareness of the people. Most of college students are to have their own goals trying to fulfil in their life. If the national security is not guaranteed, it will not be possible to achieve their dreams and goals. Currently, most of college students have been trained only for passing college entrance exams in their growth processes, and some of them are confused with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College students are spending most of time on the preparation for getting employment, so they are indifferen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ir country. After the seminar for college student's unification and security, we will survey how much they could be changed and propose the guidelines for college student's security awareness.

Key words : National security, security awareness, security, education, stateenemies, internalenemies

1. 서 론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안보의식은 국민이 국가 안보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그 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안보’란 편안히 보전됨 또는 편안히 보전함으로 ‘안전 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로 사용되며, ‘의식’이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말한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오늘 견디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이기면 꿈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도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열심히 견거나 쏘아지는 잠을 참아낸다 해도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가정환경이 불안하며,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주권국민으로서, 개인의 꿈을 펼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의식이 고양되어있지 못하다면 그 많은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자유 월남의 사례를 통해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생들은 국가안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또한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4대 화약국 중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바로 우리 한반도로 꼽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걸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고려 할 때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학생들이 청춘에 열정의 불을 지피려면 국가안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치욕의 역사, 수난의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망각하면 그 아픈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사례에서 잘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국민 스스로가 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을 때 남이 지켜주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이 올바른 안보의식을 갖추으로써 안보가 튼튼한 가운데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급 대학 혹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안보교육은 실질적으로 발전되어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변화 변화를 분석한 내용과 최근 북한의 강경한 대남 위협 발언을 접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회 청년위원회주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통일안보 대토론회”에서 토의된 사항 및 대토론회 이후 대학생들의 달라진 안보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안보 위협 및 변화

2.1 21C 안보위협특징

현대의 안보위협은 1990년대 초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대규모 군사력의 동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미국, 소련 등 초강대국의 중재자로서 조정 능력과 억제기능의 부재로 말미암아 국지적인 분쟁과 일부 불량국가에 의한 대량 살상무기의 위협, 국제적인 테러, 대규모 재난·재해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요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 분쟁은 1945년에서 1990년까지 45년간 77회 발생했던 반면, 냉전이 종식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95회의 국제분쟁이 발생하여 약 3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비군사적 위협인 테러리즘, 국제적 조직범죄, 무기 및 마약 밀매, 해적 등의 위협과 기타, 자연적 또는 비의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 요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는 과거에는 독립 쟁취 노력 등 “약자의 무기”로써 양해되는 측면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무고한 대중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전쟁이상의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현재 국제 테러조직은 70여 개국 220여개 조직으로, 이들 뉴테러리즘은 미국의 9.11참사에서 보듯이 49개국, 3,000여명이 희생될 정도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자살공격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도 확

산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 테러집단 및 사이버 위협에서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2.2 안보 환경 변화

안보환경의 변화는 과거 1세대 전쟁으로부터 3세대 전쟁은 국지적이거나 일부 전역에 국한되어 인력전, 화력전, 기동전으로 수행되어 왔던 반면, 모택동의 인민전쟁으로부터 시작된 4세대 전쟁(fourth generation warfare)은 전쟁의 주체가 국가보다는 테러집단, 마약 범죄 집단 등 국제적으로 연계된 비 국가 행위자들이고, 전쟁의 범위가 어느 특정 지역 또는 국가 등에 한정되지 않고 초국가적이며, 대상국의 사회 전체를 포함한다. 또한, 4세대 전쟁을 수행하는 전력은 단순한 무기에서부터 미사일과 화학무기,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한때는 국가만이 보유할 수 있었던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구비하고, 병력운용 면에서는 대상국의 사회 전체에 분산된 소규모 집단들로써 이들이 수행하는 전쟁목표는 지형의 탈취나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대상국의 내부 붕괴를 겨냥한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세계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국민과 국가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지역 공동체간의 대결 구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지역블록화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3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세계 각국의 동북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화를 목표로 협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은 미국의 '아시아 우선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국·일본·러시아 등도 역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강화 노력과 국가 이익에 기반 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서 영유권문제 등에 대한 우위달성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지역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긴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서며 미국·일본이 중국 전체의 수위를 대폭 높여가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중국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2.4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민간, 종교단체를 포함하여 지난 1998년부터 약 60억 달러(약 7조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270여회의 남북대화 와 회담을 하였으나, 되돌아온 것은 핵무기와 무력도발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1].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의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금지, 의심 선박의 공·해상의 검색과 압류 처분, 인도적 목적 이외에 북한에 대한 지원금지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자는 태생적인 정통성의 부족과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악화된 식량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현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 장성택 숙청과 연계하여 북한 내부 통제와 대외 위상고취 및 과시를 위해 벼랑 끝 전술로써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4세대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4세대전쟁은 전면전에 의한 직접적인 군사력 파괴보다, 가용한 수단과 자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상대국의 정치적 전쟁수행 의지의 좌절을 목표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은 비대칭적인 전력을 사용하여 한국과 주변국의 대북정책 방향의 수정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4세대 전쟁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과거 정부시절부터 패망 전 자유월남에서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많은 군사비밀의 공개, 정치적 소신이라는 입장으로 북한 옹호 및 두둔 발언, 유명세를 이용한 정부 비하발언 등, 넘쳐나는 내부의 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3. 현 대학생 안보의식 실태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의식 상태는 기성세대가 동 시대에 느껴온 것과는 또 다른 의식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부모의 과보호로 의존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나, 풍요로운 생활환경으로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반면, 전통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대다수에게 이기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소속감이나 집단을 중시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는 보편적인 기준보다 자기편의 주의로 자신을 합리화 하며,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개인적인 분야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높으며, 수직적 인간관계보다 수평적 인간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해라”라는 식을 거부한다. 넷째, 탈권위주의적 사고로 개성과 자기주장이 확실한데, 정에 따른 인간관계보다는 원인과 이유를 따지기 좋아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다섯째, 다원주의적 사고에 따라 획일적이며 제도적 관습을 거부한다. 또한, 주어진 임무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은 부족하나 도전적이며 적극적이다.

3.1 대학생들의 주요 관심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재 최대관심사는 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신문은 2013년 대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1>에서와 같

<표 1>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2]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1	·돈(등록금, 물가, 생활비 등)	30.7%
2	·취업 준비	21.5%
3	·진로 설계	12.7%
5	·학점관리 및 장학금	10.2%
6	·연애, 이성 관계	8.5%
7	·아르바이트	5.1%
8	·외국어	4.9%
9	·정체성, 자아성찰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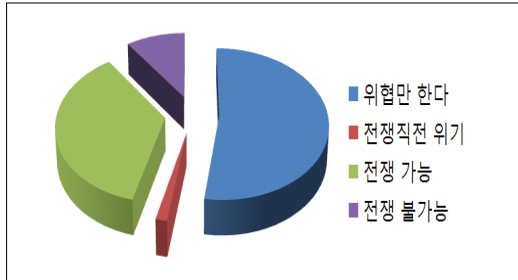
이 대학생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관심사는 돈(30.7%)을 꼽았다고 발표하였다. 그중 취업 및 취업준비

가 21.5%의 응답을 얻어 2위에 오르면서 돈과 취업이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학생들은 성별, 학년을 막론하고 대부분 돈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으나, 4학년 응답자만 취업 및 취업준비를 34.0%로 1위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2].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왜 돈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1953년 휴전 이래 우리나라는 미국의 안보의 우산 아래에서 국외적으로 안보의 위협을 피하면서 경제 발전에 주력했고, 그 결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현재 대학생들은 국가안보의 개념과 필요성조차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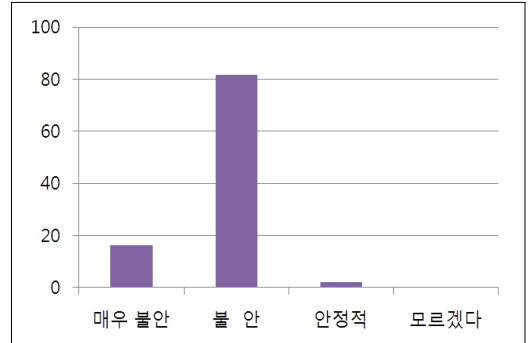
3.2 현, 안보교육 실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안보교육은 초·중·고교시절에는 대학입시에 우선하다보니 후순위로 밀렸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연 1~2회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안보 특강이 대표적이며, 그 내용을 보면 북한 관련 내용과 국난 극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안보교육 실시 시기도 대부분의 학교가 모든 시험이 종료된 학기말이다. 일부 대학교에서 ‘국가 안보학’을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교양과목 등으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2013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생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67.7%의 응답자가 ‘매우 불안하거나’ ‘불안 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을 인식은 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림 1)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도발위험은 느끼지만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3]. 본고에서는 현재 군 간부 임용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북한의 위협 및 전쟁 가능성 여부 [3]



(그림 2) 대학생이 느끼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

3.2.1 우리나라 안보 위협의 실체

군 간부로 임용 할 학생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안보 위협의 실체에 대한 조사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가장 큰 우리나라 안보 위협은 내·외부의 적(93.8%)

<표 2> 대학생이 느끼는 우리나라 안보 위협

구분	내용	비율(%)
1	외부의 적(북한)	42.8
2	내부의 적	51
3	주변국(잠재적 위협)	4.1
4	비군사적 위협(자연재해 등)	2.1
5	국제 테러리즘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생들이 주적의 개념을 알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 동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시 관련과목 강의 간 주적의 개념을 교육하여 적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응답자 중 내부의 적이라고 51%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최근 국기문란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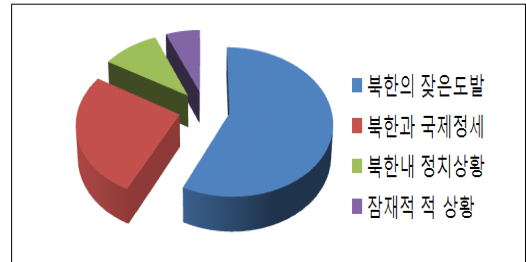
3.2.2 우리나라 현, 안보상황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림 2)에서와 같이 '매우 불안

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16.3%였으며 81.6%의 학생들이 '불안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언론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해지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정부와 군의 대응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3.2.3 우리나라 안보가 불안한 이유

안보 상황이 불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림 3)에서와 같이 57.1%의 인원이 북한의 잦은 강경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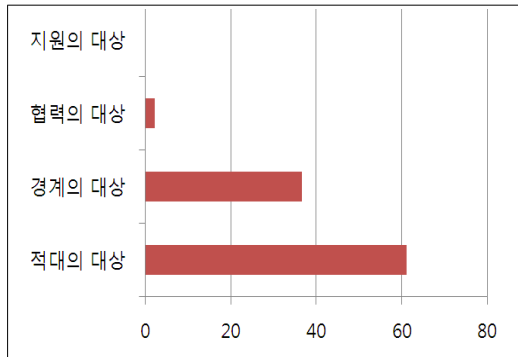


(그림 3) 대학생이 느끼는 우리나라 안보불안 이유

과 도발을 꼽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나머지 응답자의 대부분이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26.5%), 북한 내 정치적 상황(10.2%)으로 응답 하였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2007년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우리나라 안보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1.8%만이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대답[4] 한 것과 비교 시 ○○대학교 ○○학과 학생들은 현실적인 북한의 안보위험을 체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4 북한에 대한 시각 및 인식

현재 ○○대학교 ○○학과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의 설문 결과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대 세습 이후의 북한 당국과 군부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림 4)에서와 같이 적대의 대상 62.2%, 경계의 대상 36.7%로써 98.9%의 학생들이 적대 및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지원의 대상'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대학생의 북한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01년에는 햇볕정책 지지도가 61.8%이었던 반면, 10년이 지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인 2011년에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1.2%에 달 하였던 점[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안보 교육을 받은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북한을 적대적이며 경계의 대상이라고 본 점에 주목해야 하며, 향후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안보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된다.



(그림 4) 북한에 대한 인식

3.2.5 대학생이 되어 국가안보관련 바뀐 점

초·중·고교 시절 알고 있던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학생이 되어 바뀐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73%의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으며,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부의 적을 보는 눈이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정부와 군에 대한 인식도 12.3%가 바뀌

<표 3> 대학생이 되어 국가안보관련 바뀐 점

구분	내 용	비율(%)
1	북한에 대한 인식	35.5
2	내부의 적에 대한 인식	34
3	잠재적 적국에 대한 인식	6.2
4	정부와 군에 대한 인식	12.3
5	바뀐 점 없음	12

었다 는 점이다. 또한 바뀌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 안보 관련 과목을 연구하면서 바뀌었으며, 내부의 적에 대한 인식은 과거 인접국가의 사례와 특히 최근 국기문란사건과 북한 옹호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통해 인식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잠재적 위협이 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와 향후 통일 이후를 공부하면서 인식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와 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대응이라고 응답 하였다.

4.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은 건국 초기부터 반공을 기치로 내걸다가 국시로 바뀌면서 철저한 반공교육과 강력한 대북정책을 80년대까지 이어 왔으나, 그 이후에 대학가 및 사회 일각에서 반공과 간첩이라는 용어도 사라진 듯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북한 무력도발로 인해 주적의 개념이 다시 부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가르침'의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못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무엇을 (교육내용), 어떻게(교육방법), 왜(교육철학)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가 가르치는 교수와 배우는 학생들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 현재에도 적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은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고 내부의 적은 국가체제를 흔들려는 실질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4.1 안보교육의 내용

적이 없는 국가가 존재 할 수는 없다. 남과 북의 관계에서는 남북화해와 인권, 평화도 좋지만, 북한이 도발한 남침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 최근까지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 42만 5 천여 건, 주요 도발 220여건, 무력도발 30여건을 자행[1]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제 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다시는 국가체제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생 안보교육은 성년으로서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세계 안보위협 변화 및 국 내·외 안보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왜! 주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시키며, 내부의 적의 이적행위는 국내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내부의 적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동북아 정세와 잠재적 적국이 어떻게 통일 방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인지와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대국가의 국방의 개념을 이해하고, 6.25 북한 남침 전쟁의 발발배경 및 경과, 휴전협정 조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체결 배경과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안보교육의 방법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 교육은 듣는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간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백번 듣는 것 보다는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 안보교육 방법은 시각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며 그 이유는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기성과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안보교육은 단순히 듣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듣고, 말하고 봄으로써 체험적으로 느끼는 안보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 의식이 신념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기적

으로 안보 특강을 실시하고 정규 교과목에 ‘국가 안보학’ 과목을 반영하여 군·경찰, 공무원 및 교사 등 관련 학과에서는 전공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기타 학생들에게는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전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의 및 특강을 통해 이론적으로 알고 나면, 안보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피력 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보 현장 견학을 시행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상황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확고한 신념화가 가능 할 것이다.

5. 결론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거론할 때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안보를 가리켜 이념 논쟁거리로 생각하는 측면이 나타나는데, 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는 대한민국 존재의 숭고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전 국민은 안보의식이 확립되어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인식 계층은 경험 층과 피경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경험 층은 국가위기 상황을 직접 체험하여 경험적으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고, 피 경험 층은 국가위기에 대한 간접적 경험 층으로 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피 경험 층인 대학생 안보교육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방법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안보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안보교육의 필요성 인식 제고이다. 대학생들의 졸업과 취업준비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가 지켜져야만 개인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명확히 인식토록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형성해 ‘나라사랑’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 안보는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와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기억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의식이 함양되어 있어야만 분단된 현실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안보교육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보교육 내용의 구체화이다. 안보교육의 주제는 현실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안보교육 주제는 6.25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당면한 문제 즉, 북한의 핵실험 및 그 위협, 주적 개념 등과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국사와 연계하여 현실적인 안보문제를 같이 다뤄야 직접적으로 와 닿는 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주적 개념 인식과 병행하여 독일의 통일 사례 등을 인용하여 내부의 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각 대학은 대학 연도별 교과 편성에 ‘국가 안보학’을 과목으로 편성하여 이수하여야 졸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안보교육방법 개발 및 적용이다. 현재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주입식 방법을 적용하는데 교육 내용에 따라서 교육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 즉, 주입식 교육 방법은 강의나 강연 방법 현상을 알려주고 교훈을 도출하는 토의식 방법 적용을 통해 듣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몸소 체험하는 전적지 답사 등 안보 현장견학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도록 하고, 역사적 사실과 현장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은 영상물 시청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안보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흥미를 유발하면서 신념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이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장래를 맡기자는 말일 것이다. 이번 ‘대학생 통일안보 대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신념화된 안보관을 심어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1] 임병목, “한반도의 안보 환경과 현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워크숍 자료. pp2~6. 2012.
- [2] 아크로펜, 2013. 1. 4일자 中 인용.
- [3] NEWSis, 2013. 7. 2일자 中 인용.
- [4] 신성대학교, “2013 교과과정.” 2012 中 인용.
- [5] 조영갑, 「국가안보학」, 선학사. p19. 2006.
- [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1987.
- [7] 평화문제연구소 “동서독 통합 20주년 독일통일 바로알기”,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9~10. 2010.
- [8] 평화문제연구소,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150~151. 2012.

[저 자 소개]



김 규 남 (Gyu-Nam Kim)

1984년 2월 강원대학교
1998년 8월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2012년 2월 상지대학교 대학원

email : baguni52@naver.com